

人文論叢

81권 4호

2024년 11월

일반 논문

[www.kci.go.kr](http://www.kci.go.kr)



# 4대 달라이 라마 율뎨 가초 (yon tan rgya mtsho, 1589-1617)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 연구\*

최소영\*\*

**초록**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티베트 불교 교파 중 가장 늦게 흥기한 교파인 겐룩파는 정치, 종교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이에 이 교파의 최고 승려 중 한 사람인 쇠남 가초는 투메드 몽골의 칸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몽골로 가서 진교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겐룩파는 그가 티베트인으로 전세(轉世)한 것이 아니라 그를 초청한 몽골 칸의 증손자로 전세했다고 선언했다. 이 투메드 몽골 왕족의 어린이는 티베트에 도착하여, 다른 교파의 존경받는 노승에게도 절을 받았고 이는 지위와 명성에 따른 예의를 중요시하는 티베트 불교 사회에서 뜻밖의 일이었다. 또한 몽골에서 온 이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에 나눠준 대규모 보시는 겐룩파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을 바꿔 놓았고 겐룩파는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14세가 되어서야 티베트에 와서 공부 시작한 이 몽골 소년에 대하여는 학식이 부족하다는 소문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겐룩파는 강하게 부정하며 그는 충분히 뛰어났으나 겸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우리는 현전하는 소수의 기록을 통해, 달라이 라마 중 유일한 몽골인이었던 율뎨 가초가 짧은 재위기 동안 높은 지위와 부로 인해 티베트인들의 존경을 얻었으나 티베트인들이 그의 학문적 소양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보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3대 달라이 라마, 4대 달라이 라마, 티베트-몽골 관계, 겐룩파(dge lugs pa), 홍모파(zhwa dmar pa)

\* 본 연구는 2023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 연구교수

## 1. 서론

1604년 정월 티베트 라싸에서 기원대법회(祈願大法會, Tib. smon lam chen mo 윈람첸모)가 열렸다. 기원대법회, 즉 윈람첸모는 석가모니 재세(在世) 시에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기원정사(祇園精舍)에서 설법을 행하고 이적을 보여 많은 외도들을 설복한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티베트에서 15세기 초에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당시 티베트를 장악한 정권인 팍모두파(phag mo gru pa)가 자신들의 시대에 옛 토번 왕조의 영광이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겔룩파(dge lugs pa) 교단의 시조인 쯡가빠 립상 닥빠(tsong kha pa blo bzang grags pa, 1357-1419)를 후원하여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티베트력으로 매년 정월에 옛 토번의 수도이기도 했던 라싸에서 열렸으며 겔룩파가 주관하지만 티베트 내의 불교교단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규모 법회로 주변 지역의 귀족, 대중까지 모여 성황을 이루었고, 설법과 예술 행사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티베트 불교 최고위 학위를 얻고자 하는 이들의 시험장이기도 하였다. 이 행사로 인해 얻은 명성과 물자는 겔룩파 교단의 인적, 물적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sup>1</sup> 그리고 1604년의 윈람첸모를 주재한 것은 바로 당시의 겔룩파 사원 대뽕 사원의 좌주였던 4대 달라이 라마 율뽕 가초(yon tan rgya mtsho, 1589-1617)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4대 달라이 라마의 기도회 주제에 대하여 그의 전기가, 그가 완벽한 티베트어로 설법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sup>2</sup> 율뽕 가초가 티베트어로 강설한 것이 특별히 기록할 사항이었던 것은 바로 그가 몽골인이었기 때문이다. 현대 북인도 다람살라에 망명해 있는

1 김성수(2012), 「내륙아시아 불교 세계와 “윈람첸모(smon lam chen mo)”」, 『몽골학』 32, pp. 85-109.

2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dngos grub rgya mtsho'i shing rta*, Tashi Dorjee, pp. 281-282.

현 14대 달라이 라마까지 전체 달라이 라마 중 티베트인이 아닌 경우는 4대가 유일하다.<sup>3</sup>

투메드(Tümed) 몽골의 알탄 칸(Altan Khan, 1507-1582)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가서 청해(青海) 지역과 사천(四川), 내몽골을 유력(遊歷)하며 겐룩과 세력을 확대하려 노력했던 3대 달라이 라마 쇠남 가초(bsod nams rgya mtsho, 1543-1588)가 내몽골에서 사망하자, 얼마 후 겐룩과는 그가 티베트인이 아닌 알탄 칸의 증손자로 몽골에서 전세(轉世)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태어난 직후부터 몽골 지역에서 3대 달라이 라마의 전세로 여겨져 티베트 식 교육을 받았고 티베트에서 파견된 겐룩과 검증단의 전세 검증 통과하였다. 그는 율뎐 가초(yon tan rgya mtsho, 공덕의 바다)라는 법명을 얻었으며 4대 달라이 라마가 되어 1603년 중앙티베트에 도착하였다.<sup>4</sup>

당시 티베트는 몽골제국 지배기 몽골의 지지를 업고 티베트를 지배하던 사카파(sa skya pa) 권력이 팍모두파에 의해 무너지고 팍모두 세속 정권하에서 각 불교 교파들이 종교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때로 무력을 사용하며 충돌했다. 신흥 겐룩과는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으나 여러 교파의 반대에 맞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특히 쯡카빠 시기부터 겐룩과를 후원하던 이 팍모두파의 세력이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그 가신(家臣)이던 린뽕빠(rin spungs pa)<sup>5</sup> 세력, 이어서 린뽕빠의 가신이었던 데시 쯡빠(sde sri gtsang pa)<sup>6</sup> 세력이 쯡(gtsang) 지역을 차지하고 위(dbus)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던 정치적 상

3 6대 달라이 라마가 뽀빠(mon pa)라고 불리는 티베트 남쪽 변경 너머 지역 출신이기는 하나 뽀빠는 티베트의 일부로 여겨졌으므로 몽골인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4 율뎐 가초의 탄생과 달라이 라마 전세 선정, 티베트에서의 행적에 대하여는 최소영(2022b), 「몽골에서 온 活佛: 賜與와 回賜로 본 4대 달라이 라마 율뎐 가초(yon tan rgya mtsho, 1589-1617) 재위기 성격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27-2, pp. 123-153 참고.

5 린뽕빠 시대는 1435년에 시작되어, 그들의 가신 데시 쯡빠에게 세력을 뺏기는 1565년에 끝난 것으로 본다.

6 데시 쯡빠는 린뽕빠 세력에 이어 1565년에 권력을 잡았다. 이때부터, 5대 달라이 라마 아왕 룡상 가초가 호쇼드 몽골의 구시칸의 도움을 얻어 티베트를 장악하여 겐룩 시대가 시작되는 1642년까지를 데시 쯡빠 시대로 본다.

황은 겐룩과 교단에 위기를 몰고 왔다.<sup>7</sup> 린뽕빠와 데시 쟁빠 정권이 모두 겐룩파와 적대적인 까르마 까귀파를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겐룩파는 수십 년간 뽀람첸모 참석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뽀람첸모가 겐룩파의 시조인 쯡카빠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겐룩파로서 참기 어려운 굴욕이었다. 특히 16세기 말부터는 새로 권력을 장악한 데시 쟁빠 세력과 결합한, 까르마파 중 이른바 홍모파(紅帽派, zhwa dmar pa)가 세력을 떨치고 이들은 팍모두-겐룩 세력과 적대하였다. 겐룩파의 쇠남 가초가 알탄 칸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여 칭해로 가서 그를 만나 시주-복전 관계를 맺은 것은 겐룩파를 둘러싼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티베트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몽골을 돌며 전교 활동을 하던 3대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자 겐룩파는 알탄 칸의 증손자인 소년이 바로 그의 전세자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몽골 소년은 14세였던 1603년 내란이 격화된 혼란기의 티베트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다음 해 뽀람첸모를 주재했던 것이다.

이처럼 독특한 출생배경을 가진 달라이 라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는 그의 재위기(1603-1617)가 짧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그 전대(前代) 달라이 라마가 실제 초대(初代) 달라이 라마로서 칭해와 몽골에 겐룩파의 영향력을 크게 퍼뜨린 인물이고 또한 그의 후계자인 5대 달라이 라마는 또 다른 몽골의 도움을 얻어 티베트의 내분을 종식시키고 겐룩파 휘하에서 전체 티베트를 손에 넣었으므로, 그의 재위기는 가장 저명한 두 달라이 라마 재위기 사이에 낀 짧은 과도기쯤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sup>8</sup>

그러나 티베트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겐룩파가 선정한 달라이 라마 전세자가 몽골인이었던 것은 그때까지의 티베트 불교사 안

7 이 시기 중앙티베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는 Giuseppe Tucci (2013) "Central Tibetan Conflict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Tibetan History Reader* (Gray Tuttle and Kurtis R. Schaeffer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78-300 참고.

8 최소영(2022b), p. 124.

에서 매우 돌출적인 일이었고 이 결정이 비(非) 겔룩파 교단, 그리고 당시 티베트를 지배하던 세속 정권에게 뜻밖의 일이었던 것은 물론 겔룩파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을 불러올 만한 일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겔룩파가 이를 강행한 것은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어떠한 기준 외에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4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수가 지극히 적다. 국내에서 유일한 연구로, 그가 스스로 달라이 라마이면서도 자신들의 조상 몽골인 시주(施主)가 하던 관행대로 티베트인에게 보시를 준 것을 분석한 최근 연구가 있었고<sup>9</sup> 국외에서는 중국 학계에서 그의 출생지나 몽골에서의 생애 등에 대한 간단한 연구들이 행해졌다.<sup>10</sup> 서구에서도 사료를 바탕으로 그의 행적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sup>11</sup> 그러나 겔룩파 자신에게 그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티베트의 기타 교파들은 이 몽골인 달라이 라마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전혀 없다.

이 글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16세기 말에 전세자(轉世者)로 결정되고 17세기 초 티베트에 나타난 이 몽골 왕족 소년의 존재에 대해 당시 티베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전세 결정 과정부터 사망까지의 관련 기록들을 살펴 고찰해 보고자 한다. 4대 달라이 라마와 관련하여 다른 교파의 기록이 거의 없고 겔룩파의 기록도 지극히 소수이지만, 현전하는 기록을 최대한 살펴서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9 최소영(2022b).

10 樊保良(1993), 「略論四世達賴喇嘛與蒙藏關係」, 『中國藏學』 1993-4, pp. 82-88; 才讓(2021), 「四世班禪生平及與四世達賴、五世達賴之關係」, 『故宮博物院院刊』 226, pp. 4-14; 曹永年(2005), 「四世達賴喇嘛雲丹嘉措生地考」, 『內蒙古師範大學學報』 2005-5, pp. 18-21; 胡雲暉(2017), 「四世達賴雲丹嘉措之考證兩則」, 『陰山學刊(社會科學版)』 30, pp. 83-86 등이 있다.

11 Tseyang, Jangngöpa, and Yeshe Dhondup (2008), "A Brief Discussion on the Deeds of the Fourth Dalai Lama Yönten Gyatso", *The Tibet Journal*, 33-3, pp. 51-69.

## 2. 몽골에서 온 달라이 라마: 전세자 확정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위에서 본 대로 17세기 초 티베트에는 여러 교파가 병립하며 갈등하고 있었고 달라이 라마의 교파인 겐룩파가 아직 티베트의 지배 교파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또한 겐룩파 내에서도 달라이 라마의 주석지(主席地)인 대뽕(bras spungs) 사원이 겐룩 최대 사원 중 하나였으나 간덴(dga' ldan) 사원도 규모와 세력이 컸으며 또한 겐룩파의 또 다른 활발 계통인 뽕첸(paN chen) 라마가 있는 시까쨌의 따쉬뽕뽕(bkra shis lhun po) 사원 역시 세력이 컸다는 점이다. 4대의 전세(前世)인 쇠남 가초는 대뽕 사원의 좌주(座主)였고, 팍모두파가 대뽕 사원 내의 간덴 포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을 쇠남 가초의 전임자에게 하사하면서 달라이 라마 계통의 활불이 겐룩파 내 최고 지위를 갖게 되었으나 절대적인 1인자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3대 달라이 라마의 전세(轉世) 선정에 대한 겐룩파 측의 기록을 살펴보자. 3대 사망 후 겐룩파 중에서 처음 몽골인 전세를 언급한 것은, 3대를 따라 투메드 몽골부에 갔다가 남아서 그곳 불교를 관할해 주던 승려들이었다. 그중 쉘뽕 칠팀 가초(gsol dpon tshul khriims rgya mtsho)라는 승려가 중앙티베트의 겐룩파 본부에 서신을 보내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이니, 즉 알탄 칸의 손자인 수미르 다이칭이라는 이의 아들이 3대 사망 후 열 달 만에 태어났는데 몽골에서는 이 아이가 3대의 전세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서신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나, 중요 부분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후 [몽골의] 모든 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략 여기 있는 저희는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짐조가 이릅니다. 서쪽(즉 티베트)에 확실한 예조가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들 사도(師徒)들이 호법신(護法神)에게 예언을 청하고 점을 쳐서 믿을 만한

징조가 나오는지 아닌지 보십시오. 이곳(몽골)에서는 모든 부락에 [이 아이가 영동(靈童)이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당신들에게 알립니다.<sup>12</sup>

즉 몽골에 있던 겐룩파 측이 중앙티베트의 겐룩파에 소식을 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일찍부터 겐룩파와 대립하던, 까귀파의 하부 종파 중 하나인 디궁파(bri gung pa) 측의 기록은, 20대 디궁 좌주(座主) 최결 윈축(chos rgyal phun tshogs, 1547-1602)의 셋째 아들 윈축 린첸(dkon mchog rin chen, 1590-?)이 태어났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때 [윈축 린첸] 전생(前生)의 기억을 선명하게 하니 일체지(一切智, 즉 3대 달라이 라마)의 화신으로 결정되었다. 처음에 법주(法主, 3대 달라이 라마)의 수종(隨從) 몇 명이 와서 손복과 진주 염주와 손에 지니는 천 등 소지품 몇 개를 바쳤고 후에 착죄 생계(seng ge)가 왔을 때도 오류 없이 맞다고 인정되었다.<sup>13</sup>

12 “de rjes sde chen kun la grags byung bas/ …… nges 'dir yod rnams kyis gsung ma byon bar la yin min gnyis ka'i thag ma chod/ rtags rten 'brel de bzhin red pas/ g.yas phyogs su nges shes 'grongs pa bzhin e byung/ ma byung na khyed dpon slob rnams kyis/ chos skyong la lung bstan zhu ba dang/ thugs dam brtag pa/ gzan sgril sogs mdzad nas thugs yid ches pa e 'ong gzigs pa zhus pas/ sde chen kun la skad 'di grags song bas/ mthong tshod/ tshor tshod kyi gnas tshul zhus pa yin lags/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2010), *Rje btsun thams cad mkhyen pa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dngos grub rgya mtsho'i shing rta* (pu N+ya pAda rnam thar) Pecin: Krung go'i bod rig pa'i dpe skrun khang, pp. 584-585)”; 최소영(2022b), pp. 132-133.

13 “de skabs sngon gnas rjes dran gsal po byung bas/ thams cad mkhyen pa'i sprul skur thag cad nas/ thog mar rje'i zhabs 'bring 'ga' zhis byung nas phyag rnga dang/ mu tig gi 'phreng ba dang/ phyag Tar sogs sku chas 'gai zhis phul/rjes su phyag mdzod seng ge byung bas kyang 'khrul med ngos zin rung (Bstan 'dzin pad+ma'i rgyal mtshan, *Nges don bstan pa'i snying po mgon po 'bri gung pa chen po'i gdan rabs chos kyi byung tshul gser gyi phreng ba* p. 254)”; 최소영(2022b), pp. 131-132.

즉 디궁과 좌주의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이 전생에 3대 달라이 라마였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였고 이것을 3대 달라이 라마의 수종들과, 특히 3대를 곁에서 모시던 관리인(착좌) 쎅게라는 인물도 확실히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몽골 땅에 율뎨 가초가 나시니 [꺄룩파는] 그쪽으로 가버렸다.<sup>14</sup>

꺄룩파 측은 이에 대해 3대 달라이 라마는 생전에 착좌를 “쎅게”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디궁 측의 후보 아이가 착좌를 쎅게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아이가 전세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5</sup> 어쨌든 선후 관계로 보면 처음에 디궁과 쪽에서 난 아이가 3대의 전세(轉世)로 인정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디궁파는 전세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고 한 집안이 계

14 “sog yul du yon tan rgya mtsho 'khrungs pas de phyogs su song”(Bstan 'dzin pad+ma'i rgyal mtshan, 최소영(2022b), p. 254).

15 최소영(2022b), pp. 9-10. 이 착좌의 이름은 뺄뎨 가초(dpal ldan rgya mtsho)이며 3대 달라이 라마 제세 시에 명 만력제로부터 국사 칭호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널리 “착좌 쎅게”라고 알려져 있었음을 5대 달라이 라마는 4대의 전기에 적고 있다. 그리고 그가 노령에도 불구하고 몽골인 전세소식을 듣고 몽골로 간 것도 적혀 있다. “착좌 쎅뎨의 실제 이름은 뺄뎨 가초이다. 한지(漢地)의 황제의 명령으로 국사(gu shri)가 되었다. 온 세상에 착좌 쎅게(phyag mdzod seng ge, 관리인 쎅게)라고 알려진 명성이 높은 그는 위(dbus) 지역에서 제 공마(즉 3대 달라이 라마)의 원적(圓寂)하신 방법들을 잘 성취하고(즉 제사를 잘 지내고), 3대 달라이 라마가 몽골 땅에 이르렀다는(환생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귀에 듣게 된 것에 기대어, 자신이 나이 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몽골로 갔다] (phyag mdzod chen po mtshan dngos dpal ldan rgya mtsho/ rgya nag gong ma'i lung gi gu shri/ jig rten yongs la phyag mdzod seng ger grags pa'i sgra skad can des/ dbus phyogs su rje gong ma'i dgongs pa rdzogs thabs rnams legs par grub nas/ mchog gi sprul pa'i sku sog yul du byon pa'i gtam snyan rna ba'i bcud len du gyur pa la brten/ rang nyid na tshod yol ba la ma stos par/”(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최소영(2022b), p. 249). 본문의 꺄룩파의 주장을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쎅게라고 불렀으나 3대 달라이 라마만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쎅게”(seng ge)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된 단어로 “사자”(獅子)의 뜻이며 오늘날까지도 티베트인들 사이에 많이 보이는 이름이다. 한문 사료에서 “星吉” 등으로 음차된다.

속해서 대대로 교파의 좌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디궁파는 20대 좌주 최겔 윈축의 둘째 아들, 즉 위의 달라이 라마 전세 후보자 아이의 형인 가르왕 최끼 왕축(gar dbang chos kyi dbang phyug, 1584-1630)이 이에 앞서, 쟁빠 데시의 신뢰를 받고 세력을 확대하던 까르마 까귀파의 주요 지파인 흥모파의 6대 활불로 선정되어 흥모파로 갔고<sup>16</sup> 이번에는 셋째 아들을 겔룩파의 활불로 보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전세 제도가 유행하고 그 제도로 이익을 보는 교파가 많아지던 시기에 이를 채택하지 않은 티베트 불교 교파가 타 가문과 교파로 세력을 확장하여 살아남고자 한 시도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환생자가 몽골인이라는 주장 못지않게, 3대가 겔룩파와 적대적이던 교파인 디궁파의 가문에서 환생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겔룩 내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즉 겔룩파가 처음에 디궁 쪽 아이를 채택하려 한 것은 그간의 적대를 불식하고 화친관계를 맺고자 하는 착취 생계를 비롯한 겔룩파 내부의 “온건파”의 시도였고, 한편 겔룩 “강경파”는, 쟁빠 권력과 결합한 까르마파를 투메드 몽골의 군사력으로 위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알탄 칸의 증손을 4대로 선정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며<sup>17</sup> 이는 경청할 만하다.

위의 겔룩파 측 기록은 몽골 투메드 측이 먼저 “몽골인 전세자”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적고 있다. 또한 5대 달라이 라마가 쓴 4대의 전기에도, 3대

16 디궁 측의 기록은 디궁파에서는 이를 반대했다고 적고 있다[直貢·丹增白瑪堅參, 克珠群佩 譯(1995), 『直貢法嗣』, 西藏人民出版社, p. 183].

17 山口瑞鳳(1993), 「十七世紀初頭のチベットの抗争と青海モンゴル」, 『東洋文庫』 74-1/2, pp. 3-4. 한편 이 혼란에 대하여 5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던 윈축 최펠(dkon mchog chos 'phel)은 “디궁파의 윈축 린첸은 3대 달라이 라마가 아니라 3대 달라이 라마의 친밀한 시종이었던 가차 최재(ga chag chos mdzad)의 환생이었다. 그는 3대를 모시고 몽골로 갔었다. 이전의 선업(善業)과 그들 사이의 카르마의 연결로 인해 그와 율펜 가초는 동시에 태어난 것이다.”라고 답했다(Jangngöpa Tseyang and Yeshe Dhondup (2008), “A Brief Discussion on the Deeds of the Fourth Dalai Lama Yönten Gyatso”, *The Tibet Journal*, 33-3, pp. 54-55). 가까운 시종이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시기에 이미 몽골인들이 3대의 전세는 몽골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있다.

3대 달라이 라마의 시기에 몽골인들이 위대한 쯙카빠 존자의 가르침에 대해 부서지지 않는 신앙을 얻었고 수승한 법의 좋은 연결이 일어났으며, 그 위에 [그들은] “후대의 전세는 우리의 족속으로 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sup>18</sup>

겔룩파의 주장대로 몽골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몽골인 전세설을 주장한 것인지 혹은 후대에 겔룩파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덧붙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처음에 디궁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디궁의 아이를 전세자로 결정했던 겔룩파는 몽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듣고는 디궁의 표현대로 “그쪽으로 가버렸다”. 이에 1601년 겔룩파와 팍모두파의 최고 지도자들의 대리인으로 이루어진 검증단이 투메드 몽골에 도착하였고, 몽골 측의 기록인 이른바 『알탄 칸전(傳)』에 의하면 이들은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곧 아이가 전세자인 증거를 확실히 보이자 존경하고 축복했다고 한다.<sup>19</sup>

18 “rje gong ma'i dus su hor sog rnam rje btsun btsong kha pa chen po'i bstan pa la mi phyed pa'i dad pa thob ste/ dam pa'i chos kyi 'brel lam bzang po byung pa'i steng du/sku skye rting ma'i dus nged kyi rigs su 'khrungs zhes/”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p. 231].

19 Johan Elverskog (2003),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pp. 205-206; 최소영(2022b), p. 133.

### 3. 몽골인 달라이 라마, 티베트에 오다

#### 3.1 “몽골의 큰 가문 출신” 달라이 라마

검증단은 하루빨리 아이를 데리고 티베트로 가려 하였으나 투메드 몽골의 지배층이 아이를 보내려 하지 않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다가 불만에 찬 티베트 사신단이 도망치듯이 몽골을 떠나왔다.<sup>20</sup> 몽골을 떠나 청해에 이르렀을 때 역시 그곳에 있던 몽골 돌론 투메드 부의 홀로치(Tib. kho lo che)가 가지 못하게 잡아 다시 힘들게 떠나 중앙티베트로 왔다. 홀로치는 청해에 주둔하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몽골 수령으로, 한문 사료에 “火落赤”로 기록된 인물이다.<sup>21</sup>

20 몽골인들이 이 어린이가 달라이 라마의 전세자라는 사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를 티베트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17세기 몽골어 저작 『에르데니인 툽치』(Erdeni-yin tobči)는 단지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티베트로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즉 율펜 가르초의 티베트행에 대해 몽골인들이 “몽골의 지혜는 작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작은데 그를 어떻게 거기에 보내겠는가? 우리는 그가 13세가 될 때까지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Sagang Sechen, Tr. by Johan Elverskog, *The Precious Summary: A History of the Mongols from Chinggis Khan to the Qing Dynast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p. 163). 결국 율펜 가르초는 13세가 되던 해인 1603년에 몽골을 떠나 티베트로 향했다.

21 명대(明代) 저작 『만력무공록』(萬曆武功錄)은 「홀로치 열전」(火落赤列傳)을 따로 두고 그와 명의 관계를 상술하였다(〔明〕瞿九思(2007). 『萬曆武功錄』, 薄音湖 編輯點校,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4,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pp. 172-185]. 또한 『명사』(明史) 「달단전」(韃靼傳)은 홀로치의 군사활동을 상술하고, “서쪽에서는 홀로치가 가장 교활하다”(西則火落赤最狡)고 적고 있다(『明史』 卷327, 外國8, 『韃靼』). 이 시기 청해 지역의 몽골 집단에 대하여는 江國真美(1986), 『青海モンゴル史の一考察』, 『東洋學報: 東洋文庫和文紀要』 67(3·4), pp. 279-311 참고.

내몽골의 투메드 상층부가 율펜 가르초의 티베트행을 만류한 것에 이어, 내몽골을 떠난 율펜 가르초 일행이 청해에서 만난 홀로치 역시 그가 티베트로 가는 것을 만류한 것에 대해 율펜 가르초의 전기는 홀로치가 “3년은 여기서 머무시라”고 했으나 착취 생계가 그에게 화를 내며 “태양에게는 멀고 가까운 것이 없지만 북쪽으로 뚫려있는 바위굴의 시점

곧 티베트 북쪽에 도착한 4대 달라이 라마 일행은 라싸 북쪽의 레팅 사원에서부터 많은 보시를 티베트 승려들에게 주며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였다.<sup>22</sup> 4대와 그 호송단은 계속해서 라싸 북쪽의 까귀파 사원이며 역사가 깊은 딱룽(stag lung) 사원을 방문했다. 이 사원은 “세상의 속담에 의하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며 모든 대단한 가르침에 대해 지식이 크며 현명하고 올바른 인물”로 알려진, 티톡빠 삼둥 아왕 남꺄(khri thog pa zhabs drung ngag dbang rnam rgyal)이라는 저명한 좌주가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를 수행하던 티베트 대표단은 딱룽에 도착하자 그 티톡빠로 하여금 자신들이 몽골에서 데려온 어린 소년 달라이 라마에게 절하게 하였다. 티베트 불교는 연령이나 지위, 명성의 상하(上下)를 세밀히 따져 예의의 형식을 엄격히 결정하므로 이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딱룽 사원은 세력이 컸고 법주 티톡빠가 일단 나이가 많았을 것임은 물론이며 명성도 이제 막 전세자로 선정된 겔룩파 한 사원의 좌주보다 높았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겔룩파는 달라이 라마가 먼저 절을 받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겔룩파가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4대 달라이 라마가] 가문이 크고 또한 몽골(sog po)의 강함에 기대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때 논의를 하여 딱룽의 법주(法主)가 [4대에게] 절하는 것으로 칭한 것이다.”<sup>23</sup>

---

에서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이 본성인 것과 같이 우리 사도는 유정(有情)들에게 가까움과 멀이 없습디만, 이곳에 그렇게 머물고서 어떻게 성취하겠습니까?(nyi ma la nye ring med kyang brag phug kha byang bltas su nyi ma mi 'char ba chos nyid yin pa ltar/nged dpon slob sems can la nye ring med kyang 'dir de tsam bzhugs ga nas thub/)”라고 말하고 두세 달만 머문 후 떠났다고 적고 있다(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2010), p. 259). 착좌의 이 말은 자신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나 홀로치가 있는 청해 지역에 달라이 라마가 오래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율펜 가초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는 달라이 라마이면서도 몽골인으로서 티베트 승단과 사원에 많은 보시를 하는 것에 대해 최소영은 그가 “꼭빠”가 되었지만 몽골인이었기 때문에 “쿠빌라이”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고 보았다[최소영(2022b), p. 19].

23 “gdung rus che ba dang/ sog poi' gshed mo la brten pa'i da lam rtsod pa btang na stag

이 기사는 겔룩파가 율땐 가초를 전세자로 선정한 정치적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알탄 칸이라고 하는 16세기 중후반 몽골 초원 최고의 권력자의 자손이 겔룩파의 전세 활불로 “검증된” 것이 티베트에도 알려졌을 것이고, 겔룩파는 중앙티베트에 와서 들른 두 번째 사원이자 최고 명성의 좌주가 있는 딱룽에 와서 그 효과를 분명히 보았다. 땡람첸모에서 제외되는 등 시련을 겪은 바 있던 겔룩파에게 이것은 큰 힘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 알탄 칸이라는 인물의 강한 권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전 몽골제국 시기 “쿠빌라이 칸과 팍빠 라마의 관계”를 기억하는 티베트인들에게 쿠빌라이의 후손이 충분히 후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절을 받은 어린 달라이 라마는 딱룽 지방의 모든 승속(僧俗)에게 “대량의 완전한 보시('bul gnang mang 'gyed phun sum tshogs pa)”를 내려줌으로써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불교를 후원한 강력한 시주였던 쿠빌라이 후예<sup>24</sup>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었다.<sup>25</sup>

또한 4대는 팍모두파 정권의 사령부 네우동제(ne'u gdong rtse)로부터 초청을 받아갔다. 팍모두파는 짱(gtsang) 지역은 잃었으나 겔룩파가 속해 있던 위(dbus)에서 여전히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흥 교파인 겔룩파를 후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다. 4대 전기에 의하면 팍모두파는 처음에 팍모

---

lung chos rjes phyag 'bul yong zhus par/”(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2010), pp. 612-613); 관련 내용은 최소영(2022b), pp. 136-137.

- 24 몽골제국 시기 카안 울루스 즉 원조(元朝)와 훌레구 울루스(일칸국)에서의 티베트 불교 승상과 대량 의 보시에 대하여는 최소영(2022a),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참고.
- 25 투메드 부의 알탄 칸이 티베트에서 승려를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융경화의”로 교역과 “조공”을 통한 명으로부터의 물자 획득이 수월해지고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몽골은 주로 말을 비롯한 가축을 주었고 명은 비단을 비롯한 직물과 생활 물자를 주었다. 특히 15, 16세기 몽골과 명 사이에 열린 마시에 대한 내용은, 오래된 연구이나 여전히 가치가 있는 Henry Serruys (1975), *Trade Relations: the Horse Fair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를 참고.

두의 수령과 4대 달라이 라마의 자리 높이를 똑같이 하기로 했다고 한다.<sup>26</sup> 이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4대의 전임자인 3대 달라이 라마는 처음 알탄 칸의 초청을 받고 나서 마음대로 이를 승낙하지 못했고, 팍모두과의 허락을 얻고서야 청해(靑海)로 출발했다. 대병 사원의 좌주와 팍모두과의 영수가 이른바 시주-복전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지위로 따지자면 팍모두과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몽골의 강한 힘”에 기댄 율첸 가초이기 때문에 처음에 형식적으로라도 두 사람의 좌석 높이를 똑같이 하려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몽골의 힘에 기댄 새 달라이 라마는 혈통의 문제를 넘어, 물질적으로 티베트 불교 교단에 대한 보시를 바치는 시주이기도 하다. 앞선 연구에서는 율첸 가초가 처음 티베트에 진입하여 만난 사원인 레팅 사원부터 시작해서 “한지(漢地)와 몽골의 물품”으로 “사람들을 압도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였다.<sup>27</sup> 이 물품들은 주로 티베트 승려와 사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차(茶)와 물질적 가치가 높은 비단이었다. 대부분의 기록은 이 물품을 나눠주어 티베트 승려들을 만족시켰다는 정도의 내용이나, 율첸 가초가 마치 몽골인 시주처럼 티베트인들에게 물품을 나눠준 것에 대한 티베트인의 반응에 대한 가장 선명한 기록은 사까과에 속한 한 수령(sde pa)이 율첸 가초를 초청하여 지극히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자 율첸 가초의 시종들은 “사까과에 속하던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켈룩과를 신봉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네.”라고 하며 “상을 후하게 주면 반드시 용자(勇者)가 나는 것이다.” “모든 시주-복전은 3일만 잘 지내는 것이지.”라고 웃었다는 기록이

26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묘하게 팍모두과의 자리가 더 높았다고 한다. 어쨌든 처음에 자리 높이를 율첸 가초와 똑같이 하겠다고 한 것은 팍모두과 측이 이전의 3대 달라이 라마보다 율첸 가초를 더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내용은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2010), p. 288.

27 최소영(2022b).

다.<sup>28</sup>

즉 적은 수의 기록이지만, 의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중앙티베트의 불교계에서 몽골 왕족 출신인 율펜 가초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티베트인들에게 매우 가치가 높은 보시를 나눠 주어 “후한 시주(施主)”로 널리 알려졌고 이는 그를 모시는 겔룩파의 자부심을 드높여 주었다.

### 3.2. 홍모파의 축하서신

그런데 4대 달라이 라마로 티베트에 온 율펜 가초에게, 홍모파의 좌주가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앞에서 본 대로 중앙티베트 대부분의 지역은 데시 쟁빠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까르마 까귀파(karma bka' brgyud pa)의 한 계통인 홍모파(紅帽派, Tib. zhwa dmar pa)를 지지하며 겔룩파 적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홍모파의 6대 좌주인 가르왕 최끼 왕축이 운문으로 된 긴 축하 편지(legs bya'i zhu shog)를 보낸 것이다. 그는 처음 3대의 전세자의 후보였던 디궁파의 편축 린첸의 형이기도 하며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겔룩파는 이 편지를 받고 크게 분노했다. 홍모파의 좌주가 율펜 가초를 모욕했다는 것이다. 서신의 내용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으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문에 정통하지 않으면// 최고의 성인이라도 편지(遍智)를 얻을 수 없다고// [경전에서] 말씀하시므로, 지력(智力)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말고// 알아야 할 대상을 전념하여 공부하도록 하시오.// 밀주(密呪)의 만달라는 성취의 기반이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므로, 탄트라 부(部)의 바다를 의지하고 의지받는다// 승리자의 바퀴를 성숙하게 하고 해탈하게 하는 힘

28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2010), p. 637; 최소영(2022b), p. 26.

과 길, // 분명한 비밀을 오류 없이 의식으로써 취하도록 하시오.<sup>29</sup>

일견 모호해 보이는 이 문장은 학문에 힘쓰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겐룩파는 홍모파가 이 글을 보낸 의도가 온통 가초가 학문이 부족하다고 비웃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4대 전기는 홍모파 좌주의 이 시의 수준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 홍모파 존자는 수사학(snyan ngag)에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글쓰기를 취하는 것은 농부 공라 로짜와(gong ra lo tsA ba) 계통의 콥삭게와(khob shag ge ba)보다 희론(戲論)이며, 나르탕빠와 빨강빠 등의 부드러운 수사학과 린뽕빠의 힘이 큰 문장 등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sup>30</sup>

그러나 당시 겐룩파에는 홍모파 좌주의 글에 적절한 수준으로 일격을 가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황급히 3대 달라이 라마의 조카 등에게로 하여금 답을 써서 보내게 하였다.<sup>31</sup> 답장의 내용은 어느 쪽의 기

29 “rig pa'i gnas [lnga] la mkhas par ma byas na// 'phags pa mchog gis kyang kun mkhyen mi 'thob ces// gsungs phyir rig stobs g.yeng ba ma 'dring par// shes bya'i gnas la sbyang stobs mchog tu mdzod// gsang ba'i sngags kyi dkyil 'khor dngos grub gzhir// gsungs pas rgyud sde rgya mtsho rten brten pa'i// rgyal ba'i 'khor lo smin grol dbang dang lam// nges gsang 'phyug med cho gas bzhes par mdzod//[“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p. 277].

30 “je zhwa dmar pa de snyan ngag mkhas par grags kyang/ gsung rtsom gyi babs rong pa gong ra lo tsA ba'i rgyun gyi khob shag ge ba las spros pa'i/ snar thang pa dang dpal khang pa sogs kyi snyan ngag 'jam pa dang/ rin spungs pa'i shugs che ba lta bu'i yid 'phrog pa ni min par sems so//[“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p. 278].

31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과 주석을 붙여야 하는데, 대신들의 재산의 성취는 다문친왕과 겨룰 수 있지만 수사학 등 문장을 말하는 혀를 펴는 것은 낮의 별처럼 가니(그 수가 적으니), 그것의 답을 하는 사람은 누가 적절한가 하고 논의하면, 제 공마(rje gong ma, 즉 3대)의 조카인 쟈카와의 테빠 겐첸빠라고 하였다(on kyang de'i lan 'grel chags shig dgos rgyur/ drung 'khor rnam rgyu dngos kyi 'byor ba rnam thos kyi bu la 'gran par nus kyang/ snyan ngag sogs tshig sbyor smra ba'i ljags rkyong ba nyin mo'i skar ma ltar

록에도 보이지 않으나 4대 전기의 저자인 5대 달라이 라마는 애초에 홍모파의 의도가 4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 서신에 대한 겐룩파의 답장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사태는 악화되어 이들의 답장에 대하여 홍모파가 더 분노하였고, 테시 쟁빠가 위(dbus) 지역을 공격할 때 함께 라싸로 온 이들이 라싸의 조강 사원의 석가모니 불상에 건 카닥에 다시 선문답 같은 시를 내걸었다. 이 서신의 왕래는 홍모파와 겐룩파의 전쟁의 서막으로 여겨지므로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모파가 겐룩파를 조준하여 조강에 걸어들었다고 하는 시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닥(brag), 띠[[띠tig]], 삭(zhag) 세 도시에 모인 산양의 날카로운 뿔들.  
 법계의 주인은 야수의 평원에 거하고 있는데,  
 [산양들끼리] 뿔의 날카롭고 둔함을 겨루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sup>32</sup>

이 시의 의미를 5대 달라이 라마가 시 본문에 바로 이어서 풀어 써 두었다. “상세하게 하면(설명하면) 닥·띠·삭 셋은 (겐룩파의 사원인) 세라(se ra), 대뿔(bras spungs), 간댄(dga ldan) 셋이고, 겐룩을 야크에, 가르마파를 사자에 연결한 것이다.” 즉 평원에 거하는 법계의 주(主)는 사자를 말하며 이는 홍모파를 빗댄 것이고 겐룩파는 모여 있는 산양이나 야크떼에 불과한데 자기들끼리 서로 뿔이 날카롭다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겐룩파는 홍모파에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주장이다.

이런 서신이 다시 온 것에 대해 5대 달라이 라마는 처음 홍모파 좌주 가르왕 최기 왕축이 보낸 축하 서신 자체가 “오명(五明)을 공부해야 한다는

song bas/ de'i lan 'debs byed pa po su 'dra zhig 'os zhes gleng pa na/ rje gong ma'i <dpon po> [dbon po] rtse kha ba'i lde pa rgyal chen pa zhes/”[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p. 278].

32 “brag <ti> [tig] zhag gsum gyi grong khyer na/ <khong> [kho] ra gan tshogs pa'i ru rnon tsho/ rje chos dbyings ri dwags thang bzhugs la/ rwa rno rtul 'gran pa ci rang yin/”[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p. 278].

방식 등의 좋은 메시지이다.”<sup>33</sup>라고 주장하여, 4대 당시의 겐룩과 관료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문제는 겐룩과 측이 처음 온 축하서신을 오해하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관련 없이 자신의 잘못을 보이는 답을 많이 한 것”이며 그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5대는 후에 청해에서 홀로체의 아들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나 1605년 껍모두빠가 겐룩파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던 끼쇠파를 공격한 것 등 전쟁 등이 모두 겐룩파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답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있다. 즉 “그 근원(rtsa ba)도 홍모파가 축하 서신을 바친 것에 대한 답을 [겐룩파의] 슈캉 랍잠빠 등이 잘못 보낸 것이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 홍모파 존자와 서기 잠양빠 등이 간댄 포당의 권속들에 대해 공덕이 없다는 일그러진 비난을 하고 오래지 않아 홍모파가 라싸에 도착하여 조오 불상의 카다의 표제에 수수께끼에 기댄 많은 풍자의 글을 쓰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다.<sup>34</sup>

33 “rig pa'i gnas lnga la gsan bsam mdzad dgos tshul sogs/ snyan sgron legs po yin 'dug”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p. 278].

34 “de'i rtsa ba yang zhwa dmar bas legs ja'i zhu yig phul ba'i lan bzhu khang rab 'byams pa sogs kyi log par btap pa de la/ zhwa dmar ba dang drung yig 'jam dbyangs pa sogs kyiis dga' ldan pho brang gi drung 'khor rnams la yon tan med tshul gyi ngan rtsom kha yar zhig dang/ ring por ma lon par zhwa dmar ba lha sar phebs te/ jo bo'i snyan dar gyi kha yig la/ gab tshig la brten pa'i ngan rtsom gyi rnam pa mang po zhig mdzad pa”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p. 299].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 대한 기록은 겐룩과 측의 사료에서만 발견된다. 까르마 까귀파의 여러 고위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Sgrub brgyud karma kaM tshang brgyud pa rin po che'i rnam par thar pa rab byams nor bu zla ba chu shel gyi phreng ba*는 예를 들면 위 두 인물의 각각의 전세(前世)인 3대 달라이 라마와 5대 홍모파 좌주가 만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Si tu Pan chen Chos kyi 'byung gnas (1990), *Sgrub brgyud karma kaM tshang brgyud pa rin po che'i rnam par thar pa rab byams nor bu zla ba chu shel gyi phreng ba*, Sansal, Dist, Kangra, H.P., India: Palpung Sungrab Nyamso Khang, vol.1, 2, p. 118], 이 시기는 3대 달라이 라마가 알탄 칸을 만나 달라이 라마 칭호를 받기 전이므로 대뽕의 활불('bras spungs sprul sku)이라고만 불리고 있다. 이후 4대에 대하여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살펴본 1604년 윈람첸모에 대하여도, 은뎨 가초가 처음 참가하고 주재한 기도회이지만, 홍모파 가르왕 최끼 왕축의 전기는 그 자신이 기도회에 참

실제로 홍모파 측에서 4대 달라이 라마가 학문적으로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5대의 주장대로 그것이 단순한 축하 서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겔룩파 측의 반복적인 강한 부정은 4대가 당시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4대가 홍모파 좌주의 서신에 대해 상대편 최고 승려인 가르왕 쇠끼 왕축과 대등하게 답을 쓸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sup>35</sup> 대신 답장을 쓸 마땅한 사람도 없던 것을 5대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겔룩파 신료들에 대해 “대신들이 재산을 얻은 것은 다문천왕과 겨룰 만하지만, 수사학 등 문장을 말하는 혀를 펴는 것은 대낮의 별과

---

가한 기록만 짧게 실었을 뿐(Si tu Pan chen Chos kyi 'byung gnas(1990), p. 262] 율펜 가르초에 대하여는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까르마파의 여러 고위 승려들의 전기를 모은 Si tu Pan chen Chos kyi 'byung gnas의 이 책에 대하여는 Dominik Dell (2023), “Moonstone Water-Crystal Mälā”: Structure and Textual Witnesses of the Golden Garland of the Karma bKa brgyud by the Eighth Si tu, Chos kyi 'byung gnas (1699/1700-1774), and ‘Be Lo Tshe dbang kun khyab (1718-1790)”, *Revue d’Etudes Tibétaines*, n. 66, pp. 5-67 참고. 한편 4대 재위기 다른 교파의 정황에 대하여는 까르마파 중 흑모파 활발의 전기인 Richardson, Hugh Edward (1987), “Chos-Dbyings Rdo-Rje, The Tenth Black Hat Karmapa”, *Bulletin of Tibetology*, 23-1, pp. 25-42를 참고할 만하다.

- 35 이론적으로 4대 달라이 라마는 3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므로 이전 몸에서 가졌던 지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겔룩파가 처음 홍모파의 축하 서신에 분노한 것도, 율펜 가르초는 3대가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나신 것인데 거기에 대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은 전세(轉世)를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세자의 학습과 지식 문제에 대해 4대의 전기는 “요의(了義)의 관점에서 [율펜 가르초] 3대 달라이 라마와 심숙(心續)이 같기 때문에 문사(文思)를 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지만 정반왕자(淨飯王子)가 찰토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세속과 융화하기 위하여 12가지의 방식을 보인 것 등, 이전의 현철들과 성인들도 문사(文思)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견디셨다(nges pa'i don du rje gong ma dang thugs rgyud gcig pas/ gsan bsam mdzad pa la ma ltos kyang/ rgyal ba zas gtsang gi sras pos 'og min du sangs rgyas zin nas 'jig rten dang mthun par bya ba'i phyir mdzad pa bcu gnyis kyi tshul bstan pa sogs/ sngon gyi mkhas grub dam pa rnam kyang thos bsam gyi phyir dka' spyad mang du mdzad pas/”[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2010), p. 247]고 적었다. 즉 이전 달라이 라마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이전에 정반왕자도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열심히 노력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같다(그 수가 적다)”고 비판했다.<sup>36</sup> 또한 5대 자신이 4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했다.

[4대는] 안으로 금강 요가에 통달하셨고 라마와 본존신 다수의 얼굴을 친견하신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 같은 것이 일어났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큰 담력을 가진 분이셨다. 말씀의 어려운 부분이 가끔 학자들의 용기를 줄어들게 하셨지만(어려운 질문으로 학자들을 난처하게 했지만) “난 공부를 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대답하는 겸손함만을 가지셨다.<sup>37</sup>

즉 겉으로는 본존신도 친견하지 못하고, 교육도 많이 안 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한 것에서, 어쨌든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4대가 불력(佛力)이나 학식이 높지 않게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겔룩파가 정치,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3대 달라이 라마는 몽골 칸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몽골로 가서 전교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 겔룩파는 그가 몽골 칸의 증손자로 전세했다고 선언했고, 이는 먼저 전세자로 확정되었던 디궁파의 분노를 샀다. 겔룩이 이런 위협을 무

36 “drung 'khor rnam sgyu dngos kyi 'byor ba rnam thos kyi bu la 'gran par nus kyang/ snyan ngag sogs tshig sbyor smra ba'i ljags rkyong ba nyin mo'i skar ma ltar song bas”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2010), p. 278].

37 “nang rdo rje'i rnal 'byor la mnga' brnyes shing/ bla ma dang yi dam gyi lha mang po'i zhal zgigs gsung gi gnang ba s'tsal na'ang/ gzhan la 'di lta bu byung zhes mi gsung ba thugs dkyel che/ gsung rab kyi dka' gnad 'gar mkhas pa rnam dpa' zhum par mdzad kyang/ kho bos slob gnyer ma byas zhes dman cha kho na len/”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2010), p. 316].

릅쓰고 투메드 몽골 왕족의 어린이를 전세자로 모시고 온 것은, 전세 영동이 다른 교파의 존경받는 노승에게도 절을 받은 것에서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겔룩의 기록은 “몽골의 강한 힘에 기대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몽골의 정치적 수장의 자손을 티베트의 활불로 정한 것에 대해 겔룩파는 “설역(雪域) 티베트와 같은 곳에서도 처음에는 불법(佛法)만으로는 교화하지 못하고 정치의 측면에서 교화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곳에서 역시 [3대 달라이 라마가] 몽골의 황족으로 나신 것이다.”<sup>38</sup>라고 다시 한번 합리화를 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그가 티베트에 와서 교파를 가리지 않고 승려들에게 나눠준 대규모 보시는 겔룩파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을 바꿔 놓았고 겔룩은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14세가 되어서야 티베트에 와서 공부를 시작한 이 몽골 소년에 대하여는 학식이 부족하다는 소문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겔룩파는 강하게 부정하며 사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소수의 기록이지만 이 사료들을 통해 우리는, 달라이 라마 중 유일한 몽골인이었던 율첸 가초가 짧은 재위기 동안 몽골 왕족 출신이라는 높은 지위와 그가 티베트에 가져온 풍부한 물자로 인해 티베트인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학식에 대한 의심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이것이 겔룩파 스스로에게 큰 약점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Bstan 'dzin pad+ma'i rgyal mtshan (year unknown), *Nges don bstan pa'i snying po mgon*

38 “bod kha ba can lta bu'ang/ thog mar chos kho nas 'dul bar ma nus par srid kyi sgo nas 'dul gos pa byung ba dang mtshung par/ 'dir yang hor gyi rgyal rigs su sku bltams pas/”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2010), pp. 230-231].

- po 'bri gung pa chen po'i gdan rabs chos kyi byung tshul gser gyi phreng ba* (publisher unknown) [直貢·丹增白瑪堅參, 克珠群佩 譯(1995), 『直貢法嗣』, 西藏人民出版社].
-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2010), *Rje btsun thams cad mkhyen pa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dngos grub rgya mtsho'i shing rta (pu N+ya pAda rnam thar)* Pecin: Krung go'i bod rig pa'i dpe skrun khang.
-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2),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dngos grub rgya mtsho'i shing rta*, Tashi Dorjee.
- 五世達賴喇嘛阿旺洛桑嘉措 著/陳慶英、馬連龍 譯(2006), 『一世-四世達賴喇嘛傳』, 中國藏學出版社.
- Elverskog, Johan (2003), *The Jewel Translucent Su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 Sagang Sechen, Tr. by Elverskog, Johan (2023), *The Precious Summary: A History of the Mongols from Chinggis Khan to the Qing Dynast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i tu Pan chen Chos kyi 'byung gnas (1990), *Sgrub brgyud karma kaM tshang brgyud pa rin po che'i rnam par thar pa rab byams nor bu zla ba chu shel gyi phreng ba*, Sansal, Dist. Kangra, H.P., India: Palpung Sungrab Nyamso Khang (TBRC Work Number (W): 23435) vol.1, 2.
- 『明史』.
- (明) 瞿九思(2007). 『萬曆武功錄』(薄音湖 編輯點校,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諸』 4),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明) 蕭大亨(2006). 『北虜風俗』(薄音湖, 王雄 編輯點校,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諸』 2),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논저

### ㉠ 한국어문헌

- 김성수(2012), 「내륙아시아 불교 세계와 “뽀람첸모(smon lam chen mo)”」, 『몽골학』 32, pp. 85-109.
- 최소영(2022a),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 최소영(2022b), 「몽골에서 온 活佛: 賜與와 回賜로 본 4대 달라이 라마 은땡 가초(yontan rgya mtsho, 1589-1617) 재위기 성격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27-2, pp. 123-153.

### ㉡ 기타 동양문헌

- 江國真美(1986), 「青海モンゴル史の一考察」, 『東洋學報: 東洋文庫和文紀要』 67(3·4), pp. 279-311.
- 樊保良(1993), 「略論四世達賴喇嘛與蒙藏關係」, 『中國藏學』 1993-4, pp. 82-88.

- 山口瑞鳳(1993), 「十七世紀初頭のチベットの抗争と青海モンゴル」, 『東洋文庫』 74-1/2, pp. 1-25.
- 才讓(2021), 「四世班禪生平及與四世達賴、五世達賴之關係」, 『故宮博物院院刊』 226, pp. 4-14.
- 曹永年(2005), 「四世達賴喇嘛雲丹嘉措生地考」, 『內蒙古師範大學學報』 2005-5, pp. 18-21.
- 胡雲暉(2017), 「四世達賴雲丹嘉措之考證兩則」, 『陰山學刊(社會科學版)』 30, pp. 83-86.

㉔ 서양문헌

- Dell, Dominik (2023), ““Moonstone Water-Crystal Mälā”: Structure and Textual Witnesses of the Golden Garland of the Karma bKa brgyud by the Eighth Situ, Chos kyi ‘byung gnas (1699/1700-1774), and ‘Be Lo Tshe dbang kun khyab (1718-1790)”, *Revue d’Etudes Tibétaines*, n. 66, pp. 5-67.
- Richardson, Hugh Edward (1987), “Chos-Dbyings Rdo-rje, The Tenth Black Hat Karmapa”, *Bulletin of Tibetology* 23-1, pp. 25-42.
- Serruys, Henry (1975), *Trade Relations: the Horse Fair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 Tseyang, Jangngöpa, and Yeshe Dhondup (2008), “A Brief Discussion on the Deeds of the Fourth Dalai Lama Yönten Gyatso”, *The Tibet Journal* 33-3, pp. 51-69.
- Tucci, Giuseppe (2013) “Central Tibetan Conflict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Tibetan History Reader* (Ed. by Gray Tuttle and Kurtis R. Schaeff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78-300.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16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4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Tibetans towards the 4<sup>th</sup> Dalai Lama Yonten Gyatso  
(yon tan rgya mtsho, 1589-1617) Choi, Soyung\*

Between the late 16<sup>th</sup> and early 17<sup>th</sup> centuries, the Gelugpa, the most emerging sect of Tibetan Buddhism, faced political and religious difficulties. In response, Sonam Gyatso of the Gelugpa gladly accepted an invitation from the Mongol Khan and went to Mongolia for missionary activities, where he eventually passed away. The Gelugpa declared that he had reincarnated as the great-grandson of the Mongol Khan. This child from the Tümed Mongol royal family arrived in Tibet and was also revered by respected elders of other sects. According to Gelugpa records, the reason for this reverence was “reliance on the strong power of the Mongols.” Additionally, the large-scale donations he distributed changed the Tibetans’ perception of the Gelugpa, and the Gelugpa took pride in this. However, there were clearly rumors about the lack of scholarship of this Mongol boy, who only arrived in Tibet to begin his studies at the age of 14. In response, the Gelugpa strongly denied these claims, arguing that it was due to his humility. Thus, based on limited records, we can say that Yonten Gyatso, the only Mongolian Dalai Lama, was

---

\* HK Research Professor, Academy of Cultural Studies, Dongguk University

respected by Tibetans for his high status and wealth during his short reign but was repeatedly subject to doubts regarding his scholarship.

**Keywords** 3<sup>rd</sup> Dalai Lama, 4<sup>th</sup> Dalai Lama, Tibet-Mongol Relationship, the Gelukpa Sect (dge lugs pa), the Shamarpa Sect (zhwa dmar pa)

